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16호 [루게 제25094호] 주제 104 (2015)년 11월 12일 (목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고 리을설동지의 장의식 엄숙히 거행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장의식에 참가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며 조선인민군 원수인 고 리을설동지의 장의식이 11일 평양에서 국장으로 엄숙히 거행되었다.

장의식장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가장 충직한 혁명전사,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가장 친근한 혁명전우였으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혁명적신념과 의리로 받아들여온 항일의 로루사인 리을설원수동지를 잃은 커다란 비애에 잠겨있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장의식에 참가하시었다.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군들인 김영남동지, 황병서동지, 박봉주동지, 김기남동지, 박영식동지, 리영길동지, 김원홍동지, 김양건동지, 박범기동지, 오수용동지, 최부일동지, 로두철동지, 조연준동지와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국가장외위원회 성원들, 당, 무력, 정권기관, 내각 일군들, 고인의 유가족들이 장의식에 참가하였다.

항일혁명투사들인 황순희동지, 김철만동지, 박경숙동지, 리영숙동지가 여기에 참가하였다.

고인의 명구가 안치된 중앙로동자회관에는 조기가 드리워져있었다.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 군기들이 세워져있으며 명예위병들이 고인의 명구옆에 서있었다.

명구를 발인하는 의식이 진행되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련구발인에 앞서 고 리을설동지를 추모하여 련정에 묵상하시고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시었다.

고인의 유가족들, 국가장외위원회 성원들이 고 리을설동지를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추도곡이 장중하게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고인의 유가족들과 함께 리을설원수동지의 련구를 앞세우고 나오시었다.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명예의장대가 《명구에 들어 총!》을 하였다.

고인의 명구를 실은 장갑차는 모려찌를

의 호위를 받으며 대성산혁명렬사릉을 향하여 떠났다.

령구차가 지나는 수도의 거리들에는 우리 당의 충직한 호위전사이며 인민의 참된 아들인 리을설원수동지와 영결하기 위하여 모여온 수만명의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이 서있었다.

그들은 일련단심 당과 수령을 충직하게 받들어 선군혁명위업수행에 특출한 공적을 쌓아올린 귀중한 로혁명가인 리을설동지와 영결하는 크나큰 슬픔에 잠겨있었다.

장의행렬은 옥류교와 만수대거리, 보통문, 영웅거리, 비파거리를 통과하였다. 인민군장병들은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며 천만군민을 주체혁명위업의 계승 완성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으로 힘있게 고무추동한 고인의 생애를 가슴뜨겁게 추억하였다.

리을설원수동지는 항일대전의 간고한 시절부터 혁명의 사령부를 목숨으로 보위하여온 우리 혁명의 제1선 호위전사, 항일의 로루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사랑과 믿음속에 백두의 혁명정신을 체질화하며 견결한 혁명투사로 자라난 그는 무비의 용맹과 희생성을 발휘하여 사령부의 안녕을 지키고 수령결사옹위의 산모범을 보여주었다.

그는 해방후 위대한 수령님의 신변안전

을 보위하는 책임적인 직무에서 사업하면서 안팎의 원수들의 악랄한 준동을 짓부셔버리었으며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도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 과 결탁한 미제의 공중 폭격과 압해책동으로부터 혁명과 조국의 운명을 결사수호하고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보장하는데 공헌하였다.

전후시기와 사회주의건설시기 그는 백두산시절과 다름없는 한모습, 한본새로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으로 옹위하였으며 우리 혁명무력을 무적필승의 백두산혁명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온갖 지혜와 정열을 다 바치었다.

리을설원수동지는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를 백두광명성으로 높이 만들어올리고 순결한 망심과 지성을 바쳐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명도를 충직하게 보좌하면서 인민군대안에 당의 유일적령군체계를 확고히 세우기 위한 투쟁에 뚜렷한 자욕을 남기었다.

그는 우리 혁명이 력사에 류폐없는 간고한 시련을 겪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에도 위대한 장군님을 제1선에서 호위하며 우리 당을 총대로 충직하게 받들고 위대한 장군님의 제일충신, 혁명전우, 참다운 혁명전사의 본분을 다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의 끝까지 혁명의 군복을 입고 당을 받들려는 전사의 소망을 헤아리시어 최고사령부의 중요직무도 맡겨주시고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었으며 우리 혁명의 원로로 내세워주시고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었다.

2 번 으 로 계 속



고 리을설동지의 장의식 엄숙히 거행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장의식에 참가하시였다



1 번 에 서 계 속

우리 혁명의 1세, 항일의 로투사들을 제일로 아끼고 내세워주시며 로당익장 하도록 끝없는 활력을 부여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크나큰 은정속에서 리을설원수동지는 선군혁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억세게 나아가는 계승자들의 대오에 수령결사옹위정신, 조국수호정신을 깊이 심어주며 생을 빛나게 마무리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리을설원수동지를 잃은 비통한 심정을 안고 고인의 령구를 찾으시어 로혁명가의 삶을 최상의 경지에서 값높이 빛내어주시며 투사가 지녔던 충실성과 혁명적신념을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군인들, 인민들의 가슴마다에 소중히 새겨주시였다.

인민군장병들은 크나큰 비애에 잠겨 우리 인민군대를 혁명의 수뇌부결사옹위

정신으로 만장약된 백두산혁명강군, 선군혁명의 주력군으로 강화발전시키는데 한생을 다 바친 고인과 영결하였다.

각계층 근로자들도 한생을 인제나 변심 없이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진심으로 따랐으며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를 어떻게 모시고 받아들여야 하는가를 실천적모범으로 보여준 리을설원수동지에게 심심한 애도를 표시하였다.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오랜 기간 헌신적으로 투쟁하여 온 로혁명가를 잃은 애석한 마음을 금할수 없어 거리를 오가던 시민들도 가던 길을 멈추고 고인의 령구를 바래왔으며 리을설원수동지의 령구를 실은 장갑차는 통통네거리, 버드나무거리, 문덕거리를 서서히 지나갔다.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은 항일의 로투사의 숭고한 모범을 본받아

죽어도 버리지 않을 혁명신념을 간직하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굳게 뭉쳐 이 땅위에 부강하고 번영하는 사회주의강성국가를 반드시 일떠세우고야말 결의를 다짐하였다.

령구를 실은 장갑차는 대성산혁명렬사릉에 도착하였다.

고 리을설동지의 반신상이 세워져있는 대성산혁명렬사릉에는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명예의장대가 정렬해있었다.

영결식이 엄숙히 거행되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영결식에 참가하시였다.

국가장의위원회 성원들, 고인의 유가족들, 당, 무력, 정권기관, 내각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애국가가 주악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동지가 애도사를 하였다.

추도곡이 주악되고 조총이 발사되는 가운데 고인의 유해가 안치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그렇게도 념원하던 강성국가건설위업의 승리와 조국통일의 날을 보지 못한채 애석하게도 우리곁을 떠난 리을설원수동지에 대한 복받치는 애도의 정을 안으시고 군대의 책임일군들, 유가족들과 함께 고인의 유해에 흠을 없으시였다.

화환진정곡이 울리는 가운데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인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존함을 모신 화환이 리을설원수동지의 반신상에 진정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명의로 된 화환들이 진정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일편단심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받들어 열혈의 충정을 다하여온 고 리을설동지를 추모하여 목상하시였다.

국가장의위원회 성원들, 고인의 유가족들, 당, 무력, 정권기관, 내각 일군들이 고인을 추모하여 목상하였다.

리을설원수동지는 비록 심장의 고통을 멈추었으나 우리 군대와 인민은 주체의 선군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한생을 바친 혁명렬사를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며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세운 투사의 고귀한 업적은 길이 빛날 것이다.

본사정치보도반



고 리을설동지의 장의식 엄숙히 거행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장의식에 참가하시었다



애 도 사

오늘 우리는 커다란 슬픔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가장 충직한 혁명전사,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친근한 혁명전우였으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혁명적신념과 의리로 받들어온 우리 혁명의 제1세 호위전사, 항일의 로투사인 리을설원수동지와 영결하게 됩니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백두산에서 항일성전에 참가한 그날로부터 혁명의 년대와 년대를 이어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한 성스러운 복무의 길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온 리을설원수동지는 그 명도자 넘원하던 강성국가건설위업의 승리와 조국통일의 날을 보지 못한채 실장의 고통을 멈추고 애써하게도 우리곁을 떠났습니다.

리을설원수동지와 영결하게 되는 이 시각 우리들은 일련단심 당과 수령을 충직하게 받들어 선군혁명위업수행에 특출한 공적을 쌓아올린 귀중한 로혁명가를 잃은 슬픔을 감할수 없으며 복받치는 애도의 정을 누를수 없습니다.

리을설원수동지의 생애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육천적사랑과 세심한 보살피심속에서 참다운 혁명가로 자라나 가장 값높은 삶을 누려온 고귀한 한영이였으며 수령보위의 제1선초소에서 백육같은 충정을 바쳐온 총대투사의 빛나는 한영이였습니다.

일제식민지통치의 암담한 시기 식민지망국노의 비참한 처지에서 헤매이던 리을설동지는 1937년 여름 어린 나이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끄시는 조선인민혁명군에 입대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대전의 불길속에서 풀갈한 소년혁명가들을 키워내실 숭고한 뜻을 안시고 소년총대를 조직하여주시였으며 리을설동지를 비롯한 소년총대원들을 친부모도 들수 없는 위대한 사랑으로 돌보아주시였습니.

간고한 행군길에서 험한 장애물이 나서면 몸소 업어 건너지주시고 총탄이 비발치는 전장에서 한몸으로 감싸안아 보호해주신 친어머니사랑, 손에 연필을 쥐여주시고 가가거거를 배워주시고 때로는 엄한 꾸중도 하시며 혁명의 철리를 심어주시신 위대한 스승의 손길이 있어 리을설동지는 혁명적수행관을 체질화한 열혈투사로, 높은 군사적자질과 능숙한 정치공작방법을 소유한 항일명장으로 지라날수 있었습니다.

리을설동지는 사령부 전령병으로서 높은 책임성과 혁명적경각성으로 호위사업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아슬아슬한 위기의 순간에는 기관총을 들고 적들속에 뛰어들어 무비의 용맹과 희생성을 발휘함으로써 사령부의 안녕을 지키고 수령결사옹위의 산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소부대활동의 나날에도 동지는 무전수로서 사령관동지의 의도를 결사판결하였으며 일제침략자들을 무자비하게 격멸소탕하고 조국해방의 승리를 이룩하는데 공헌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해방후 저택에 리을설동지의 숙소를 정해주시고 부관으로 임명해주시였으며 동지의 생활을 친부모의 심정으로 돌보아주시고 몸소 봉나물잔치상도 차려주시면서 혁명업무에 충실하도록 절음절을 손잡아 이끌어주시었습니다.

리을설동지는 아버지수령님과 김정은동지께서는 해방후 저택에 리을설동지의 숙소를 정해주시고 부관으로 임명해주시였으며 동지의 생활을 친부모의 심정으로 돌보아주시고 몸소 봉나물잔치상도 차려주시면서 혁명업무에 충실하도록 절음절을 손잡아 이끌어주시었습니다.

리을설동지는 아버지수령님과 김정은동지께서는 해방후 저택에 리을설동지의 숙소를 정해주시고 부관으로 임명해주시였으며 동지의 생활을 친부모의 심정으로 돌보아주시고 몸소 봉나물잔치상도 차려주시면서 혁명업무에 충실하도록 절음절을 손잡아 이끌어주시었습니다.

에 보답할 일념을 안고 미제의 무력침공을 분쇄하며 조국과 혁명의 운명을 수호하기 위한 준엄한 투쟁에서 무비의 용맹을 떨쳐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명전에 다진 맹세를 충직하게 지켰습니다.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과 결탁한 미제의 악랄한 폭격으로 최고사령부 가까이 떨어진 시한탄을 죽음의 각오하고 목도도 날라 제거한 결사전에 대한 이야기와 우리 혁명역사의 갈피갈피에 새겨진 리을설동지의 영웅적인 위훈담들은 오늘날도 만사람의 심장을 울리고 있습니다.

김일성군사종합대학을 졸업하고 조선인민군 변함부대, 대원함부대의 책임직인 위치에서 사임하던 나날에도 리을설동지는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으로 융위하며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로신을 관철하는 길에서 언제나 백두산시절과 다름없는 한 모습, 한 본색이었습니다.

수령앞에서 항상 솔직하고 고지식한 자세로 전사의 본분을 다하여온 리을설동지를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끝없이 아끼고 사랑하시면서 주실수 있는 온갖 은정과 배려를 다 들려주시었습니다.

리을설은 일찌기 부모의 슬하를 떠나 한생을 자신의 길에서 살아오면서 무장으로 당을 보위해왔다고, 지나거나 자기수행만을 생각하고 수령의 건강과 신변안전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친 진짜배기혁명가라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값높은 평가는 동지가 항일의 로투사로 당의정착하여서 영웅적한생을 더욱 빛내일수 있게 한 고귀한 활력소로 되었습니다.

백두산일영시절부터 위대한 장군님을 백두광명성으로 높이 받들어올리며 순결한 망심과 지성을 바쳐온 리을설동지는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명도를 충직하게 보좌하면서 인민군데안에 유일적명군체계를 확고히 세우고 우리 혁명무력을 무적필승의 백두산혁명강군의 명전에 다진 맹세를 충직하게 지켰습니다.

리을설동지는 혁명의 수도 평양을 보위하는 군부대와 호위부대의 책임임군으로 내정취진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정치적신임을 심장에 새기고 군인들을 항일무장투쟁시기와 조국해방전쟁시기 친위전사들의 충실성의 전통을 계승한 수령결사옹위투사로 키우기 위하여 온갖 심혈을 기울이였으며 준엄한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조국수호와 부강조국건설위업을 진두에서 명도하시어 위대한 장군님의 안녕을 지켜드리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였습니다.

리을설사령관은 인생의 유년기도, 인생의 청춘기도, 인생의 로년에도 당과 수령에게 충직해온 혁명선배이라고, 수령님과 자신께서 걱정하는 문제를 모두 풀어준 애국자라고 하시면서 조선인민군 원수칭호를 안겨주시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본인도 알지 못한 병상대를 헤아려보시고 다 른 나라에 보내어 수술을 받도록 하여주시였으며 떠날 때에는 물론 돌아올 때에도 몸소 비행장에 나가서 뜨거운 정을 부어주시었습니다.

자신과 함께 혁명을 더 오래 하자면 건강을 돌보아야 한다고 하시며 동지의 건강회복을 위하여 온갖 대책을 세워주시고 최고사령부의 중요직무를 맡겨주시신 위대한 장군님의 극진한 보살피심이 있었기에 리을설원수동지는 불치의 병으로 진단받은 때로부터 근 20년간 군복을 벗지 않고 당을 받드는 길에서 총대전사의 한 생을 빛내일수 있었습니다.

리을설원수동지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품속에서 혁명전사가 받아안을수 있는 최상의 영광과 행복을 다 누

렸으며 오늘은 값높은 영생의 언덕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사랑과 정을 그대로 이시어 원수동지의 건강과 생활, 가정생활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일일이 헤아려주시고 다 풀어주시였으며 원수동지가 올린 소박한 편지들도 빠짐없이 보아주시고 친필서한까지 보내주시는 크나큰 믿음과 영광을 안겨주시었습니다.

함으로 리을설원수동지는 백두산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따사로온 품에 안긴 그날로부터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당과 수령의 품속에서 혁명전사의 가장 값높은 삶을 누려왔으며 세상을 떠난 후에도 당과 인민의 추억속에 영생하는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명도에 의하여 우리 당과 공화국의 존엄과 위용이 만방에 펼쳐지고 혁명의 앞길에 전례없는 최진성기가 펼쳐지고있는 때에 리을설원수동지와 같은 로혁명가를 잃은것은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에게 있어서 크나큰 손실로 됩니다.

우리는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한생을 바친 리을설원수동지를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며 원수동지가 받들어온 수령결사옹위의 모범을 따라배워 위원이 되시어 장의행사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으며 전군에 조기를 띄울데 대한 명령을 하달하시고 동지의 유해를 대성산혁명렬사릉에 안치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리을설원수동지의 명전에 자신의 명의로 된 화환을 보내주시고 명구를 찾아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시며 일련단심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받들어 열혈의 충정을 다하시어



어은 원수동지에 대하여 값높은 평가를 주시었습니다.

리을설원수동지가 받아안은 김일성총장과 김정일총장, 공화국2중영웅칭호와 로력영웅칭호를 비롯한 많은 훈장과 표창들은 당과 혁명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친 원수동지의 숭고한 충정과 무한한 헌신성에 대한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최상최대의 믿음의 표시로 됩니다.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명도에 의하여 우리 당과 공화국의 존엄과 위용이 만방에 펼쳐지고 혁명의 앞길에 전례없는 최진성기가 펼쳐지고있는 때에 리을설원수동지와 같은 로혁명가를 잃은것은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에게 있어서 크나큰 손실로 됩니다.

우리는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한생을 바친 리을설원수동지를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며 원수동지가 받들어온 수령결사옹위의 모범을 따라배워 위원이 되시어 장의행사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으며 전군에 조기를 띄울데 대한 명령을 하달하시고 동지의 유해를 대성산혁명렬사릉에 안치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리을설원수동지의 명전에 자신의 명의로 된 화환을 보내주시고 명구를 찾아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시며 일련단심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받들어 열혈의 충정을 다하시어

